2016 전남-사가현 교직원

상호 교류 연수 보고서

일본의 혁신교육과 수업방법의 변화 탐구를 통한

전라남도 교육 발전방안

2016. 11.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사가현 교직원 상호 교류단

Ⅰ. 교류 연수의 개요

1 국외연수 지역의 사전 탐색

가 일본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의 일반사항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아기의 건강과 미래를 빌고, 또 장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성당이나 교회에서 현대식으로 화려하게 치르고, 나이가 들어 장례식을 치를 때는 사후세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불교적으로 치른다고 한다. 이처럼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이룬 나라 일본은 현대적이면서도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간간이 찾을 수 있는 옛 모습의 풍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수도: 동경 (Tokyo)
- 인구: 약 1억 2710만명
- 면적: 약 38만㎢ (한반도의 1.7배)
- 언어: 일본어(Japanese)
- 기후: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
- 주요민족: 일본족 (Japanese, 98%)
- 종교: 神道(Shintoism), 불교(Buddism), 기독교(Christianity)

나 사가현에 대해 알아보자

사가현의 일반사항

- 연혁: 사가의 명칭 유래는 '야마토 타케루 노미코토가 순행했을 때, 장목의 우거진 것을 보고 "이 나라는 사카에노 쿠니(번영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그 후 사카에노미야코(번영의 도시)라고 되었다가 새롭게 사가군(佐賀県)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히젠 풍토기에 기록되어 있다.
- 위치: 사가현은 규수 북서부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후쿠오카현, 서로는 나가사키현에 접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현해탄, 남으로는 아리아케해에 인접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도쿄까지 직선거리는 약 900Km 오사카까지는 약 500Km인 것에 반해, 사가까지는 200Km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역사: 옛날부터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가 깊은 사가현, 옛 야요이시대에 유적을 공원화 한 요시노가리 역사공원과 화재로 소멸된 사가성의 혼마루 전각을 복원한 사가홍혼마루 역사관 등, 장대한 역사 로망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다.

※ 지도 및 자료 출처: 일본 규수 사가현 관광홈페이지(http://www.welcome-saga.kr)

2 국외연수 배경 및 세부내용

가 연수의 목적

- 21세기 한·일 양국 간 협력기반 구축
- 한·일 양국민 간의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
- 한·일간 교육 및 학술 교류 확대

나 연수 기간

- 2016. 11. 13.(일) ~ 2016. 11. 17.(목), 4박 5일

다 연수 방향

- [일본의 혁신교육 및 수업방법의 변화]를 주제로 선정
- 실질적 교류 활동을 위한 학교방문교류 프로그램 실시
- 자발적인 활동을 위해 자율 활동 시간 배정
- 원활한 교직원 교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교육 실시

라 교류단 명단 및 역할 분담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1	전남보건고등학교	교장	정병국	단장	단장
2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박형심	기초자료수집	
3	신대유치원	원장	전금자	유치원방문기록	
4	낙안초등학교	교장	황경주	기초자료수집	
5	순천선혜학교	교감	조남준	사가현교육위방문기록	
6	옥과중학교	수석교사	이명희	중학교방문기록	
7	진도고등학교	수석교사	허신기	고등학교방문기록	
8	황전초등학교	교사	김형진	초등학교방문기록	
9	여천초등학교	교사	정권식	공무여행보고서작성	
10	교육진흥과	장학사	채정화	행정관리	행정요원
11	교육진흥과	주무관	김덕중	사진촬영	행정요원
12	교육진흥과	주무관	배호영	행정관리	행정요원

마 연수 세부 일정

일자	장소	교통	시간	주요일정
제1일 11/13 [일]	김 해 후쿠오카 우레시노	KE 783 전용버스	07:00 09:15 10:05 전 일	전세버스 김해공항으로 이동 김해공항도착 수속 김해 출발 후쿠오카공항 도착 / 입국수속 사가 이동 / 숙박
				HTL : 사가 뉴오타니호텔
제2일 11/14 [월]	사 가 우레시노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사가대학 교육학부 부속유치원 ▣사가현교육청 사가성 혼마루 역사관 요시노가리 역사 공원 숙박
				HTL : 사가 뉴오타니호텔
제3일 11/15 [화]	사 가 아 소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사가현립 우시즈고등학교 ▣오기시립 초중일관아시카리간란교 아소 이동 / 호텔 투숙
				HTL : 아소팜빌리지호텔
제4일 11/16[수]	아 소 유 후 인 벳 부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 시라카와 이동 유후인 문화체험 벳부 문화체험 호텔 투숙
				HTL : 벳부온천호텔
제5일 11/17 [목]	벳 부 후쿠오카 김 해	전용버스 KE 784	전 일 11:05 12:00	호텔 조식 후 후쿠오카 공항 이동 후 출국수속 후쿠오카 출발 / 김해 향발 김해도착, 해산

Ⅱ. 교류 연수를 준비하며

1 Happy Start! 연구개요

구분	영역	조사내용	대상	방법
일본	일본교육	일본의 교육제도와 최근 수업 방법의 변화 방향 탐구	·	문헌연구
교육청	혁신교육	일본의 혁신교육(미래핵심역량교육)의 방향	교육청	질문지 현장탐방
학교교육	유·초·중·고	유·초·중·고등 교육에서의 혁신교육(미래핵심역량)과 수업 방법	각급학교	
문화탐방	문화예술	일본의 생활 문화와 역사에 대한 탐방	문화체험	

2 우리나라의 미래핵심역량

가 2015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1)]

1)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
2)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3)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4)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5)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6)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나 2016. 전남계획[2)]

○ 지적 역량: 창의 융합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창의적·융합적 사고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역량
○ 인성 역량: 창의 융합 한 개인이 타인을 만나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
○ 인성 역량: 참여·소통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좋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능력

1)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12.01.)
2)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 전남교육계획 2016

Ⅲ. 교류 연수를 결과

1 일본 교육에 대한 사전 탐색

가 일본의 교육제도(현대)

■ 일본의 학교는 4월에 새학년이 시작된다. 수 주간의 여름방학과 2주간의 신년방학이 있다. 한 학년은 3월에 끝나며,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2주간의 방학이 있다.

수업은 1주일에 5일 내지 6일이다. 전통적인 방식과 컴퓨터 교육과 같은 현대적 기술을 병행하여 가르친다. 평일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또는 3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경우는 주로 12시까지 한다. 오후에는 입시준비학원에 가거나 운동 또는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한다.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40명이다. 분단은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중요하다.

복장도 중요하여 학교에 따라 단정한 교복을 입게 했다. 남학생의 경우 스탠드칼라에 납단추가 달린 검은색 교복이 전통적이나 바야흐로 색상이 청색 등으로 바뀌고 있으며, 하복은 주로 짧은 소매이다. 여학생 교복은 주로 짙은 감색에 하의는 주름치마이지만, 이 역시 변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의 모자를 쓴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만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굳이 인근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학생들은 수업뿐만이 아니라 소풍 및 졸업 여행, 스포츠 및 운동회, 그리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 교과목

거의 모든 일본 학생들이 영어를 배운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6년 이상 영어를 공부한다. 물론 국어인 일본어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일본어 습자(習字)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일정한 연습이 필요하다.

일본어에는 한자(漢字), 히라가나(ひらがな), 가타카나(カタカナ)의 3가지 글자체가 있다. 한자는 6세기에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어 표기에 도입되었는데 복잡하여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2가지 형태의 글자체가 만들어졌다. 이 일본어 자모(字母)는 46자로, 글자는 로마자처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된다.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글자를 표기하는데 사용한다.

한자는 단어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대부분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발음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이다. 전통 문학작품, 이름 및 특별한 저술에는 더 많은 글자가 쓰이나,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는 대략 2,000여 자이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약 1,000자의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하며, 그 나머지는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익히게 된다. 중학교의 필수 과목은 국어(일본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및 가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교육제도 (일본의 사회와 문화, 2011. 2. 28., 제이앤씨)

2 현장탐방 및 질의·응답

가 사가대학 교육학부 부속유치원(佐賀大学教育学部附属幼稚園)

■ 방문일시: 2016. 11. 14.(월) 10:00

■ 일정별 활동 내용

가) 유치원 원장님(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통합장님)
- 연수단 환영인사(자녀가 한국외대에 유학을 다녀옴)
- 자녀보육의 교육철학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연수단장님의 인사

다) 유치원 부원장(보육원장)의 유치원 소개
- 사가유치원의 연혁(1970년에 개원)하여 창립 46년이 됨
- 2년전에 전면 보수를 실시함
- 교육목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학생 육성
- 사가대학 교육학부 부속유치원으로서의 사명
  ① 연구 유치원으로서의 역할: 다른 유치원 교사들이 방문하여 연구함
  ② 실습 유치원으로서의 역할: 사가현의 예비 유치원 교사들의 실습장
  ③ 사가현의 중심유치원으로서의 역할
- 환경을 통해 학습
- 사가현 대학에서 가족과 함께 생태·환경 교육 실시
- 학생인원수 소개(성별, 연령별)
- 교직원 현황에 대한 소개
- 현재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 연구 등 다수
- 원가, 월별 주요 교육 활동, 시설개요, 일과표에 대한 소개
- 보육지도에 대한 소개
- 지진 대피 요령 동영상 교육 자료에 대한 소개

라) 기념 선물 교환
- 유치원 학생 가족들과 함께 만든 '은행나무 열매' 교환

■ 질의·응답

순	구분	질문 및 답변 내용
1	질의	▫ 유치원 교육 방법을 '놀이교육'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지속성은 어떻게 되는가?
	응답	▲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성을 키우는 것이 '놀이교육'의 주요 교육 목표이다. 학생들은 아침에 오면 가방 정리 등을 스스로 실시하고, 유치원 안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실시한다. 일주일 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놀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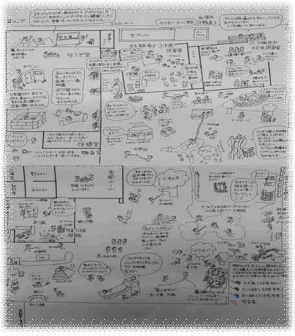
2	질의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놀이의 연관성 및 이러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잘 성취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응답	▲ 환경을 통한 교육은 '문무성(한국의 교육부)' 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인 유치원 학생들이 자립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 지필평가 등의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는 교사들의 관찰과 질의·응답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질의	▫ 자유롭게 학생들이 놀이를 하다보면 소외된 학생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응답	▲ 소외되어 가만히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함께 하자' 라고 말은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기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언젠가는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부분만 교사들이 관찰하며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4	질의	▫ 졸업과 수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응답	▲ 한국의 유치원과 다르지 않다. 3~4세반(한국의 5~6세반) 아이들은 수료이고, 5세반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5	질의	▫ 보육과 교육의 의미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응답	▲ 오전에는 '교육' 이라는 개념으로 교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를 '보육' 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보육과 교육의 개념을 나누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유치원에서는 교육이나 보육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6	질의	▫ 1학급당 교사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가? 또한 그 교사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응답	▲ 1학급당 교사는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담임교사는 정교사 신분이며, 부담임은 비상근교사(1년씩 계약)이다. 5세반만 3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5세는 초등학교 입학전 단계로서 그룹별로 하는 교육 활동이 존재하여 교육지원사 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7	질의	▫ 교실, 수영장 등의 청소 등의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등은 누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응답	▲ 청소는 학생들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과 교사가 같이 한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및 준비 활동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큰 시설은 시설 관리를 책임하시는 분이 주2회 방문하여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8	질의	▫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에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있는가? 또 부속 유치원으로서 다른 유치원보다 자율성이 있는가?
	응답	▲ 일본도 문무성에서 지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목표 수준만 제공한다. 나머지는 유치원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부속유치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립 유치원들도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중에서는 과목이 정해진 곳도 있다.
9	질의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원 연수 제도는 존재하는가?
	응답	▲ 유치원마다 자율연수 계획을 세워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10년마다 한 번씩 자격증 갱신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본 유치원은 다른 유치원의 모범으로서 놀이교육 연수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은 지도안 및 1일 지도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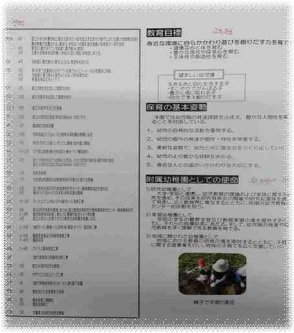
현장탐방 사진자료

유치원 방문 기념 촬영

부원장의 교육과정 소개

기념 선물 교환





유치원 교육과정 소개 자료

유치원 교육 활동 및 시설 모습 자료

나 사가현 교육청(Saga Prefectural Government, 佐賀縣廳)

- 방문일시: 2016. 11. 14.(월) 13:00
- 일정별 활동 내용

가) 사가현 교육청 교육진흥과장 환영 인사 및 교류 연수에 대한 경과 보고
나) 전남교육청 방문단장 인사말
다) 기념품 교환
라) 오찬 간담회

현장탐방 사진 자료별 간담회 내용

전라남도 교육청	사가현 교육청

가) 교육청의 지위와 지역 환경의 여건

▫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감은 민선으로서 주체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청이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전라남도 지역은 농어촌이 많으며, 소규모 학교가 많아 그에 맞는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오찬회 기념 사진

▲ 사가현 교육청은 사가현청의 부속기관으로서 교육감은 임명직이어서 예산 및 교육 활동 운영에 중앙 정부와 사가현청에 종속되어 있다.

▲ 사가현 지역은 전라남도보다 지역은 넓지만, 인구수가 적다. 자연적인 환경은 두 지역이 비슷하지만,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중급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다.

나) 한국과 일본 교육의 장점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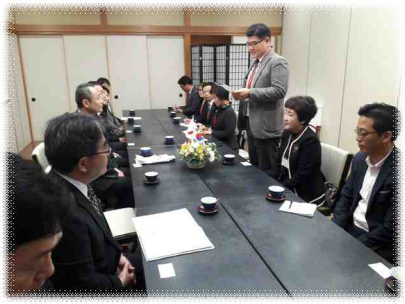
▫ 교류단으로서 지켜 본 일본교육의 장점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거리 및 집 주변, 학교 주변이 정말 깨끗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청결한 모습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가현 교육청의 환영 인사

▲ 한국은 IT강국답게 학교 및 교실에 IT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심어주는 것 같아 감명 받았습니다.

다) 한국과 일본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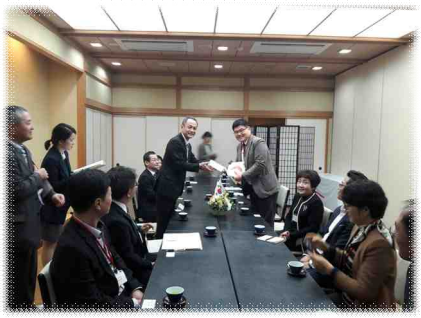
▫ 한국교육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꾸며 융합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남 교류단의 방문 인사

▲ 일본교육은 학생들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한 기초·기본 학력의 정착. 학교급별 및 학교별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자율적인 교육방법과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라) 전라남도교육청과 사가현 교육청 교직원 연수의 방향은?



기념품 교환식

※ 공통의견

- 현재의 교직원 연수의 방향 즉 학교방문과 학교공개, 상호 장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 일반교원들도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분과별 토론 및 오찬

다 사가현립우시즈고등학교(佐賀県立牛津高等学校学)

방문일시: 2016. 11. 15.(화) 09:30

일정별 활동 내용

가) 사가현립우시즈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
- 가정과 전문학교로 교육, 복지 등의 리더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임
- 개교 53년째이며 작년에 식품조리과 학생들이 전국대회 1위를 수상함
-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고1까지 가정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나) 전라남도 교류단장의 인사말

다) 상호 기념품 교환

라)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일본에서의 가정과: 초·중·고 가정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초등학교 5, 6학년 115시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생활 태도
- 중학교 87시간: 생활 자립에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
- 고등학교 1학년 70시간 또는 140시간 선택: 주체적 지역, 가정의 실제적인 태도 육성

라) 우시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① 우시즈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 직업인 육성 - 문화의 전승과 창조 -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의 문제 해결

② 가정고등학교 4개과 운영
- 생활경영과: 복지·교육 등 인간적인 서비스인 육성 ⇒ 대학진학 후 자격 획득, 간호사 등
- 복식디자인과: 옷의 디자인, 제작, 패션 리더인 육성, 사가현의 전통기술로 만드는 천 공법, 기모노 입는 법 등 교육 ⇒ 옷에 관련된 직업으로 진출
- 음식디자인과: 음식 관련 리더 육성, 국가 영양사 자격 습득, 과자 만드는 기술, 초등학생들에게 음식에 대한 교육 봉사 등 ⇒ 영양사 자격 취득을 위한 대학 진학, 제과점 등에 진출
- 식품조리과: 조리사 자격 습득, 일식, 양식, 급식 등을 배움 ⇒ 사회에 진출

③ 학생 구성은 남학생 10%, 여학생 90%이며, 남학생의 거의 식품 조리과에 있음

④ 특색교육: 배운 것을 펼치기 위한 전국대회 출전

⑤ 방과후활동: 학생 90%가 활동하는 테니스, 남자소프트볼 등 활동

마) 현장탐방 및 질의·응답

질의·응답

순	구분	질문 및 답변 내용
1	질의	▫음식디자인과 학생들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응답	▲식품조리과는 조리사 자격을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영양사 자격은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만 취득할 수 있다. 식품조리과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이다.

2	질의	▫ 전반적인 학생들의 진로 선택은 어떠한가? 취업과 대학 진로 선택의 비율은?
	응답	▲ 한 과에 40명의 학생으로 4개과 160명이 한 학년이다. 그 중 취업과 대학진학이 각각 50%이다.
3	질의	▫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고민이나 학생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응답	▲ 학생들의 기술 향상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방과후 휴일에 대회 지도 등을 위해 출근해야 할 때가 있다. 일본은 시간외 수당 개념이 없으며 휴일 근무시간을 평일 근무시간에 휴식으로 대체한다.
4	질의	▫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신입생 선발기준 즉 선발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경쟁률은? 또한 한국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응답	▲ 모두 공개선발로 원서 접수 후에 시험으로서 선발한다. ▲ 2번에 걸쳐 선발하는데 2월 첫 번째 선발은 정원의 20%로 일본어, 영어, 수학 시험을 치르고, 3월 두 번째 선발은 정원의 80%로 일본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시험으로 선발하며 중학교 내신 성적도 반영한다. ▲ 입학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1.3:1인데 사가현 평균 1.18:1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 공개 경쟁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배려 기준은 따로 없다. 사가현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입학시험에 사회적 약자 배려 기준이 없으며 이 선발시험은 각각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능력만 판단한다. 장애인이나 특수학급 대상자는 따로 특별 지원 학교가 있다.
5	질의	▫ 신입생 선발 후에 과를 배정하는가?
	응답	▲ 입학할 때 원서에 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과별로 경쟁하여 선발한다. 그래서 과별로 경쟁률이 다르다.
6	질의	▫ 조금은 특이한 생활경영과의 진로 방향은 어떻게 하는가? 이 학생들이 관련 대학을 진학 할 때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
	응답	▲ 간호사는 대학을 졸업해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 공부 중 병원에서 실습하고 나오는 실습비를 학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 대학 입학은 관련 대학에서 학교로 추천 숫자를 배당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대학에서 추천자가 왔는지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모집 후 여러 평가를 통해 추천자를 선발한다.
7	질의	▫ 기숙사 등의 학생 편의 시설은 있는가?
	응답	▲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기숙사는 없다.
8	질의	▫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인성교육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응답	▲ 인성교육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은 있지 않지만, 학생들은 외부 지역 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9	질의	▫ 교장선생님의 경영방침에 대한 교원들과의 소통은 어떠한가?
	응답	▲ 1학기 정규교육과정은 4월 1일 부터인데 4월초에 교직원들에게 교장의 경영방침을 발표하고, 교직원과 1:1 면담을 통해 서로 대화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현장탐방 사진자료

고등학교 현관앞 기념 촬영

교장선생님의 환영인사

기념 선물 교환

고등학교 교육 활동 및 질의·응답 모습

라 오기시립 초중일관아시카리간란교

■ 방문일시: 2016. 11. 15.(화) 12:30

■ 일정별 활동 내용

가) 오기시 교육장의 환영 인사

- 오기시의 위치와 인구, 특산물, 자연환경 소개
- 오기시는 문화, 스포츠 시설이 잘 갖추고 있음

① 초, 중학교 12개로 ICT교육,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② 초중일관교육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한다는 의미임

나)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

- 초·중 9년간 교육과정 운영, 방문 일정 설명 및 자기 소개

다) 급식 지도 참관

- 교실급식 및 보조 교사가 있음

라) 급식 시식

마) 학교 개요 소개

- 학생수 초등학생 263명, 중학생 137명으로 총 400명
- 학년반 초등학교 11학급, 특별지원 학급 2학급, 중학교 6학급, 특별지원 1학급으로 구성
- 학년별로 2학급 정도이며 교직원은 60명 정도
- 교육목표: 고향을 사랑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건강한 학생 육성
- 구호: '다함께 배우고, 생각하고, 참여한다.'로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내용
- 초·중학교 공동 입학식 및 졸업식, 체육대회는 5월에 초·중 통합 운영
- 11월 문화 발표회에서는 1~4학년은 전시, 5~9학년은 공연으로 참가. 학년·학급별 발표회 등 다양하며 방과후 발표회도 있음

바) 교직원 연구체제: 초·중 통합으로 9년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

사) 학교 급식에 대한 내용: 학생들이 자발적인 급식지도 실시

- 배식, 교실급식, 학교 야채 활용, 식육의 날(지역 특산물이나 향토 식물 제공) 운영 등

아) 수업 및 시설 참관

자) 질의·응답 및 기념품 교환

질의·응답

순	구분	질문 및 답변 내용
1	질의	▫(급식)학생들의 희망 조사를 통해 식단 등에 반영하는지 여부와 먹기 싫어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응답	▲학년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음. 먹기 싫어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으나 간혹 발생할 경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함
2	질의	▫일본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실 수업 개선(수업 방법)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의 노력은 어떠한가?
	응답	▲어떤 수업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개인학습, 협력 학습 등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함.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교내 지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대략 1년에 16회
3	질의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교사는 배치되어 있는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응답	▲원어민 보조교사는 유치원, 초·중학교를 통합하여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1주일 동안 1학급에 1~2번 정도 원어민 활용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다른 영어교육은 휴식시간 또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4	질의	▫패스트푸드, 운동 부족 등의 비만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응답	▲특별히 비만 학생이 존재하지 않으며, 급식에 기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역특성상 3세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 거의 없음.
5	질의	▫학교가 깨끗하고 질서있게 정돈되어 있다. 학생들은 언제, 어떻게 청소하는가?
	응답	▲모든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5교시 수업이 있기 전에 청소를 실시한다. 한국처럼 위탁을 한다거나 학부모들이 와서 청소를 하지는 않는다.

6	질의	▫ 초·중학교 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응답	▲ 학생들 사이에 큰 마찰은 없다. 지역적 특성으로 외부 유입 인구가 없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끼리의 유대관계도 좋은 편이다.
7	질의	▫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꿈과 끼, 그리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예술·감성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가현은 어떠한가?
	응답	▲ 학생오케스트라와 같은 예술교육프로그램은 있지 않지만, 1년에 1~2번의 문화 예술 공연 관람을 실시한다.
8	질의	▫ 초·중 통합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교환수업을 하고 있는가?
	응답	▲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없으나, 중학교 교사 특히 음악, 가정, 과학, 미술, 과학 교사들이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있음.
9	질의	▫ 특별지원 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응답	▲ 한국과 비슷하게 문교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주고 개별화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장탐방 사진자료

초중일관아시카리간란교 기념 촬영

교육장의 환영인사

방문단장 인사

초·중학교 교육 활동 및 각종 시설 견학

소감문 1 기본에 충실한 일본 사가현의 교육

전남보건고등학교
교장 정 병 국

2012년 2월 6일 전라남도와 사가현 우호교류약정 체결 1주년 기념으로 가와사키 도시히로 사가현 교육장님이 전라남도교육청을 방문하였을 때 교류식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교류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무척 설레고 책임감도 함께 느꼈다.

지금은 가와시키 교육장님은 퇴직하셨으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구마시로 교육정책과장은 부교육장으로 승진하셨다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뻤다.

이번 사가현 방문을 통해 유치원, 초·중 통합학교, 고등학교까지 직접 수업과 시설을 참관하고 교직원과의 진솔한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의 교육과 수업 방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저의 느낌을 시로 적어보았다.

어린 아이들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며
선생님과 함께 줄넘기 하고
맘껏 뛰놀며 환하게 웃는다.

귀여운 손으로
국을 뜨고 빵을 나누어 주네
제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정답게 점심을 먹는다.

단정한 옷차림
화장 끼 없는 순수한 얼굴
우리 모두를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네

조리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고기를 썰고 야채를 다듬으며
오늘 최고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제 빛깔을 내고 행복한 웃음이 꽃피는
즐거운 학교

소감문 2 마음껏 놀면서 즐기는 놀이 속 유아 행복교육은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박 형 심

일본 갈 때 마다 항상 느끼지만 '깨끗하다'. '차분하다'. '수수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에도 나의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깨끗하다'

쓰레기 하나 없는 길거리, 깨끗한 자동차, 건물들, 그리고 자연 환경.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유, 초, 중, 고등학교도 모두 깨끗하다. 교실도 운동장도 깨끗하다.

누가 청소를 할까? 궁금하여 여쭤보니 모두가 학생들이 한다고 한다. 청소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기에 더욱 깨끗하다.

'차분하다'

길거리 사람들도, 유치원에서 놀이하는 유아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급식을 나르는 학생도, 급식을 먹는 모습도, 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의 모습도, 실습장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도, 운전하는 기사님도 모두 모두 바쁘지 않고 차분하다.

'수수하다'

편안한 복장으로 놀이하는 유아들의 모습, 우리나라 70년대 학생들의 모습과 비슷한 초, 중, 고등학생들의 모습, 염색하지 않고 백발을 즐기시는 중년들의 모습, 길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모두가 수수하다. 화장하는 학생들도 없다. 잠시 촌스럽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사가대학 교육학부 부속유치원도 인상적이었다.

그 날은 비가 와서 날씨가 약간 쌀쌀하였는데도 양말도 신지 않고 반바지에 맨발로 뛰 놀면서 우리들을 보자 반갑게 인사한다. 유치원 교육은 등원부터 하원까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칫 유아를 방임할 수 있는 놀이교육의 문제점을 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체육활동, 역할놀이, 미술활동, 바깥놀이 등 활동들이 다양하게 2명의 교사와 어울려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를 맞으며 바깥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부원장님이 주변에 있는 무거운 폐타이어나 교구들을 이동해 주시니 유아들은 그것을 이용한 놀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비 오는 날에도 바깥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화, 비옷 등을 항상 비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놀이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놀이중심의 교육은 실내외 흥미영역을 설치하여 유아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자유선택활동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곳의 놀이와 우리의 놀이가 왠지 다르게 느껴진다. 이곳의 아이들은 놀면서 행복해 보인다.

실컷 놀았으니 학교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자고 유아들에게 부탁한다는 부원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도 유아들이 행복해하는 교육! 실컷 놀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을까?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전남유아교육을 위해 유아의 행복을 우선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자로 마음껏 놀이할 수 유아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을 해본다.

소감문 3 기초· 기본교육을 다시 생각하다

신대유치원
원장 전 금 자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에 대한 궁금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남의 유·초·중등학교 관계자 14명이 일본으로 향했다. 우리 전남 교육과 일본 교육이 무엇이 다를까? 우리들은 이번 일본과의 교류에서 무엇을? 이라는 물음표를 안고 4박 5일의 여정을 보냈다.

○ 소박하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

후구오카 공항에서 내려서 살펴 본 일본의 첫 인상은 주로 검정색의 빛바랜 듯한 지붕들과 작은 텃밭에는 화초를 심어 정성으로 가꾸는 모습, 그리고 수수한 차림의 화장기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소박한 느낌을 받았다.

방문한 사가대학부속 유치원 교실에는 교구는 많지 않고 코너 2~3개가 한쪽 벽면 비치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신문지를 교실 바닥에 마음껏 널려 놓고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비품 또한 오래된 물건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폐품을 활용하여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어려서부터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초·중 병설인 아시카리간란교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수집한 병뚜껑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분류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소박하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 모습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환경 보호 등 일석 삼조의 효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입으로 외치는 교육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가 현재도 폐품을 활용하고 있지만 더욱 폐품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 생활 속에서 자립인으로 육성

유치원 아이들은 '어리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은 '하모니'라는 자원 봉사자가 간식 및 청소를 돕고 있으며, 초·중등 모두 '깨끗한 학교' 용역이 있어 청소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나 일본에서는 유치원 시기부터 청소 도구(걸레)를 갖추고 청소하는 방법을 익히고 초 · 중등으로 연계되어 자기가 생활하는 곳을 정리 정돈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과 기본적인 가정일(조리, 의복, 청소)을 학교에서 실천하도록 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 인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자기 주변 정리 정돈은 어느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우리들도 어린 시기부터 주변을 스스로 정리 정돈하는 교육이 우선되어야한다.

○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생활

우리 교류단이 방문한 학교는 유치원, 초등, 중, 고등학교 였는데 해당 사가현 교육청 담당자들이 매일 나와 우리들을 안내하였다. 첫날 명찰과 명패, 화분을 준비하였는데 처음 준비한 명패와 화분을 방문지 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방문학교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일본 교육을 둘러보고 어린 시기부터부터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고 초·중등으로 이어져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서 우리들은 기초·기본 교육의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

소감문 4 인간과 자연, 그리고 교육

낙안초등학교
교장 황 경 주

여행은 내 마음의 때를 벗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일상에의 탈출과 같은 것이다. 가까운 나라이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관련을 가진 일본은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도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방문 특히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 활용면을 최대한 많이 견학하여 주목할 만한 수업을 우리 교육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접목하는 등 수업의 질을 제고시키는 과제 및 명승고적지, 자연탐사 등 문화 체험를 안고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연수에 참여하였다.

순천-부산-후쿠오카-사가현-아소산-벳부-후쿠오카-부산-순천까지 4박 5일의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내가 느낀 것은 일본은 살림을 잘하는 주부처럼 모든 것이 정돈되고 칼칼하게 단장해 놓은 부잣집 같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교육에 있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학제를 형성하였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학제를 보완해가고 있었다. 유치원의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학생 육성을 목표로 환경을 통한 놀이교육, 초중일관아시카리간란교의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초중통합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게 느껴졌다. 나름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제가 형성되고 교육과정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인접국과 교환학습이 확대되는 것 같고 기본생활 습관 형성교육, 창의성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실태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름의 형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수 학습 측면으로 볼 때 수업참관에 제한이 있었지만 교사 나름대로 교수방법을 개발·적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생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교사에게 평가에 있어 거의 절대권이 있어 개별지도와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름의 권위가 있어 흔들리는 우리 교단과 비교해 볼 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성적에 대한 교과 교사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교육 환경 시설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전통적 교사(校舍)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 히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놀랐다. 우리나라에는 교실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다 설치되어 있는데.....나라가 부자라는 건 단순히 국민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인 체계가 합리적이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느꼈다. 고등학교의 교수학습 열성, 실습실은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교재 교구도 탐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학교에 큰체육관, 수영장 있다는 점이다. 체육활동을 비롯한 야외 동아리 활동은 사회 교육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대부분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도 사회교육과 연계된 시스템이 보다 구체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기존의 운동장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사회체육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교직원들의 근무태도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교사들의 정성을 다하는 급식지도, 수당을 받지 않고 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휴무일 교육활동 등은 감동 그 자체였으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교무실에 설치한 학습자료 준비 공간, 조그마한 행정실, 교육지원업무를 1순위로 두며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행정낭비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동안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 놓은 관습과 문화들을 둘러보면서 자기것에 대한 인식과 소중함은 어디에서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만들고 지켜온 유구한 역사속에 다듬어진 나름대로의 문화들을 더욱 소중히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문화를 재창조하는 국민들이며 나아가 역사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아이들이며 교육하는 교사들도 더욱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는 교장이 되어야 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왔다.

소감문 5 「기대」「생각」그리고 「동행」...

순천선혜학교
교감 조 남 준

2016년 11월 13일, 다소 상기된 마음으로 일본 사가현의 4박 5일 일정을 기대하며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약 20년 전에 일본 문부성 초청으로 한 달간 일본 문화와 특수교육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때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고, 약간 폐쇄적인 느낌을 받았었다. 그저 우리나라에 비해 이들의 교육시설이 참으로 부럽다! 정도만 느꼈었는데 이번엔 일본 교육이 매우 궁금해졌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22명, 문학상과 평화상까지 합치면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학교교육은 과연 어떨까? 하는 기대감으로..

11월 14일 사가대학 교육학부 부속유치원에서 놀라운 교육활동을 접했다. '자유보육'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원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면서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소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활동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유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라는 설명을 듣고 일본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11월 15일 일본의 특성화고등학교인 사가현립우시즈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진지한 수업태도, 동일한 복장, 교실 환경과 수업진행 방식 등 군대식 교육을 보는 듯 했다. 우리나라의 자유분방한 교실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교육의 기본은 이런 게 아닐까?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수업 디자인, 학습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등 수업에 대한 기준과 나의 교육철학이 잠시 흔들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9년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오기시립 초중일관아시카리간란교를 방문했다. 교실 입구 복도에 학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학생들의 키를 고려하여 고학년과 저학년용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교실 칠판도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들이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또한,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중고일관교를 도입하고 있었다. 중고일관교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6년제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교 입시로 부담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여유롭고 충실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일본의 교육제도 중의 하나이다. 학교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개혁을 디지인한다' 와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의 저자 사토 마나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이 서로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일본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일본 사가현과 우리 전남교육의 교류 또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꿈꾸며...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소감문 6 학교교육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다.

옥과중학교
수석교사 이 명 희

일본 사가현과 전남도교육청의 교사교류를 위한 기회를 갖게 됨을 먼저 감사함을 느낀다. 일본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과 학교 환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갖고 일본에 도착했다. 날씨가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더워서 바쁜 일상으로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가을 경치를 맛볼 수 있어 더 좋았다.

처음에는 일본의 사가대학 교육학부 부속유치원 방문이 있었다. 건물들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풍부했다. 3세, 4세, 5세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있었다. 놀이를 통한 자기 자율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갖고 아이들이 맘껏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다. 마루바닥에서, 진흙 물구덩이에서 교실 밖에서 모두들 흩어져 뭔가를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한 경우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유치원 부원장님도 물웅덩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필요한 기구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산만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 줄넘기 놀이를 할 때는 줄을 지어 차례를 지키며 하는 모습도 보이고 삼삼오오 모여서 만들기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소꿉놀이 등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우리아이들이 밖에서 하던 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어떠한가? 궁금했다.

두 번째 학교는 사가현립 우시즈 고등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였다. 생활가정과, 요리과, 요리 디자인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0명의 학생으로 여학생이 400명, 남학생은 50명으로 구성된 학교였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유사한 형태로 학생들은 각자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리학과는 일사분란하게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요리자격증을 따기 위한 연습과 각자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요리(양식, 일식. 급식요리...)에 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실습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한결같이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각자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는 아주 오래된 학교이지만 교실이나 복도 어느 한 곳에 휴지란 보기 힘들었으며 아주 깨끗했다. 우리는 청소를 용역을 주는 지에 대해 궁금했다. 학생들이 직접 청소한다고 했다.

세 번째 학교는 오기시립 초중일관아시카리 간란교 방문이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학교로 우리는 급식지도와 시설, 수업지도를 보았다. 급식연구학교이나 할 정도로 급식지도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 주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학생들이 직접 급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맡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모든 학생들의 의자에 걸레가 하나씩 걸려있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교실과 학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학교에서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 하게 했다. 우리학교의 교실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쓴 웃음이 나오게 만든 모습이기도 했다.

일본학교의 탐방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됐으며, 우리생활의 기본적인 질서의식, 예의,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 등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일본 학교 탐방을 통해 많이 보고 느끼는 경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이었으며 학교교육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소감문 7 오겡끼데쓰가? 니혼. (안녕하세요? 일본)

진도고등학교
수석교사 허 신 기

보통 일본과 한국의 지리적 가까움을 표현할 때 두 나라가 한 줄기 개울을 사이에 두고 있다 하여 일의대수(一衣帶水)라 한다. 실제로 일본은 정말 가까웠다. 김해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 쯤 지나 곧 착륙한다는 기내방송이 나올 정도였으니, 마치 제주도 약간 건너편의 또 다른 섬처럼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을 처음 방문하게 된 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심정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그리 가깝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이착륙 시 아래로 언뜻 보이는 한. 일 사이의 바다를 내려다보며 내가 알고 있는 내 의식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한스런 과거의 아픈 장면과 안타까운 모습들을 떠올려 보았다. 우리 선조들이 임진왜란, 한일합방 등의 역사적 사건 속에 흘렸을 눈물과 불행의 아우성이 들려오는듯하여 가슴이 무거워졌다.

일본, 우리의 역사 속에 이 나라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 사무라이, 막부, 쇼군, 존왕양이, 메이지유신, 꽃꽂이, 온천, 기모노, 게이샤, 오타쿠, 이지메, 성적개방, 예절, 배려, 정밀한 기술, 지진, 원전폭발, 방사능, 쓰시, 자판기... . 이 많은 단어들을 머릿속에 담고서 나의 일본 방문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솔직히 난 이번 4박5일 동안의 짧은 일본 방문 동안에 그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에 접었다. 이 또한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기에.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동양의 섬나라 이면서도 사상은 유럽의 일부이기를 원했고 (脫亞入歐), 왕을 그렇게 떠받들면서도, 자기들의 고유사상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 하면서도 모든 것을 버려가며 실리를 추구하였고 (존왕양이, 화혼양재), 면전의 말과 표정은 실제 본마음과는 다르다는(다테마에와 혼네)가 존재하는, identity가 복잡한 나라라고 난 생각했기에 오늘 이 글의 내용 또한 그야말로 주마간산격(수박 겉핥기)일 수도 있겠다.

첫 날 김해를 출발하여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 숙소에 들어가기 전 약간의 시내구경을 하였다. 대학 교양일어 한 학기 수강 정도의 빈약한 일본어 경력이지만 한자와 병기되어 있는 여러 도로 이정표와 음식이름, 게시문등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한자로 대변되는 동양문화권의 위대함이란 어디서나 통했다. 내가 전에 방문했던 베트남, 싱가폴, 캄보디아 등에서처럼.

방문 2일째 되던 날부터 본격적인 전남교육청 대표단과 사가현 교육청 관계자들의 교류에 의한 학교방문이 시작되었다. 그 날 우리는 한 유치원을 방문하여 일본 아이들과 만남을 가졌고 나의 생각은 세상의 어디든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고 예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어울리겠다 싶었다. 한,일의 아픈 역사는 이곳에 있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방문 3일째, 우리는 초, 중학교와 병설로 되어 있는 초,중 일관 아시카리간란교를 방문하였다. 역시 해맑은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아직은 어린 티를 못 벗어난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질서정연하고 교사의 지도에 순응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일본은 역시 잡단의식을 강조하는 나라처럼 느껴졌다. 똑같은 교복, 똑같은 신발, 가방 등

너무도 자유스러운 우리 학생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여러 생각도 들었지만 문화적인 차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참 신선했다. 특히 급식시간에 급식실이 아닌 각 교실에서 선생

님들의 지도하에 질서정연하게 급식에 임하는 모습은 색다르면서도 그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노고까지 생각되면서 좀 답답함이 느껴졌다. 먹을 때만큼은 잡담도 하며 즐겁게.... (선생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즐기면 좋으련만) 나는 늘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였지만 판단은 유보하였고 두 나라의 교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연상해보았다.

오후에는 우시즈고등학교 탐방, 난 전남의 인문계고등학교 영어교사이기에 주로 대학입시를 목표로 할 인문고등학교에서 영어수업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시즈고등학교는 일본의 명망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였다. 그곳에서 일본은 의외로 가정(Home economics) 교육을 중시하여 공통과목으로 지정 학습한다하여 뭔가 기본을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기성품(ready-made)으로 둘러싸인 현실에서 직접 요리, 재봉 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모노를 입고, 만들고, 입히는 것을 한 학기동안 학습하고 패션쇼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복식(服飾) 수업 등에서 기본과 고유한 문화를 전승하는 그들의 자긍심을 볼 수 있었다.

"잇쇼켄메이(一生懸命), 한 가지 일에 평생을 건다." 는 일본의 특성 중 하나 그리하여 몇백년을 걸쳐 이뤄내는 그들의 장인정신의 결정 "시니세(노포, 老鋪)" 그것들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되어져가는 과정이려니 생각되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만은 없었다. 짧은 일정동안 무엇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들의 교육에 대해 작은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말 한다 .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미래에 좋은 이웃을 키워내는 선린의 교육, 상호이해의 교육, 보편적 인류애의 교육이 두 나라에서 펼쳐지길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전남교육청과 사가현 교육청의 교류가 큰 의미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교류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 감사하고 영광이다. 한국, 전남의 아이들이 세계사의 주역이 되고 내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내는 교육현장의 작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간바레(힘내라) 일본 그리고 한국!

소감문 8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다

황전초등학교
교사 김 형 진

일본을 추상적으로 알기에는 그저 친철하고 모방의 국가이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고통을 준 국가로 알고 살아왔고, 겉과 속이 달라 야비해 보이는 그 나라 사람들,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나라가 유럽 열강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 아시아의 거물이라는 것이 전부였으나, 이번 여행으로 하여금 일본은 나의 그런 생각들이 편견이었음을 알게 해주고, 내가 알던 일본이 다가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일본시민들의 절제와 질서의식, 배려심, 절약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좋은 점이고 일본을 선의의 경쟁자로 삼아 세계강대국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 11월 13일 부푼 가슴을 안고 새벽부터 분주하게 챙겨서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번 전라남도와 사가현 교직원 상호교류 연수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사가현대학교교육학부부속유치원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이었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경우 담임교사가 반별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곳의 경우 교사는 프로그램별로 그대로 있고 학생들이 발단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중 자신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이 질문을 해올 경우 거기에 대해 응답해주고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만 관여를 한다는 것이다. 즉 아이들은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하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유치원 교육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재로 방문한 우시즈고등학교에 들어선 순간 오래된 건물이지만 청결하고 위생적이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 우시즈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비슷한 학교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로 Life management과, Fashion Design과, Food Design과, Food Creat과 총 4개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과별 교사의 지도와 각과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바로 사회에 나가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천적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오기시립초중일관교 아시카리칸란교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급식과 체육활동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급식의 경우 학교 텃밭에서 키운 야채를 이용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로 이용하고, 가공식품이 아닌 급식실에서 직접 만든 수제음식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체육활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만들 때부터 고민한 흔적이 보였으며, 보건실의 경우에도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었고 또한 체육관 옆에도 보건실을 따로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연간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이 우리나라의 교육기부 활동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기부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번 전라남도-사가현 교직원 상호교류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본받을 점을 든다면 먼저 사가현대학교 교육학부 부속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교사에게 질문을 할 경우 교사가 무릎을 꿇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 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우시즈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교감선생님의 방문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세, 손님들이 실내화를 벗고 교실로 이동하며 그 실내화를 다시 신고가기 편하게 손수 방향을 돌려놓는 배려심에서 일본에 대한 생각을 변화 시키게 되었고, 오기시립초중일관교 아시카리칸란교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칠판 등 기자재가 배치되어 있었고, 교사 또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받고 설명하는 자세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 9 밤하늘의 만월처럼 우리 교육도 충만하길

여천초등학교
교사 정 권 식

2016년 11월 15일에 1948년 이후 68년 만에 가장 큰 슈퍼문이 지구에 왔다. 밤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아주 큰 보름달을 보며,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배울 점과 우리나라 교육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일본 땅에 발을 내딛었다. 궁금하면 질문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4박 5일의 시간동안 '교육이란 무엇일까?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현장을 살펴보았다.

일본을 처음 방문한 첫날부터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내 눈에 들어온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은 청결한 거리였다. 쓰레기가 버려진 곳을 찾기도 힘들고 심지어 하수구까지 깨끗이 정리된 모습은 일본 사람들의 성품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또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릴 반겨주었으며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다소 촌스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교복, 가방, 실내화 등이 일정한 장소에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당연한 것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에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거리와 학교현장은 어떠한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나 하나는 괜찮아.' 또는 '누군가 치우겠지.' 등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교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에도 정말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 스스로 가정, 학교 어디에서도 청소를 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다반사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고민해 본다.

'행복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교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 우리 교육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호성 교육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이 난무하다. 그래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일본의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공통의 목표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3, 5, 7세가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비는 의식을 행사하고, 성인식이 되면 전통복장을 마련해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는 의식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된다. 특히 4세까지는 유치원 교육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을 해야 하는 사회체제가 참 부러웠다.

학교의 교직원들은 또 어떠한가? 교직원 모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교사들은 시간외 수당 등을 받지 않고도 방과후 활동, 휴무일 교육 활동으로 봉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교과 전담 선생님이 없어도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교과전담 시간 1시간 가지고 교사끼리 싸우고, 수업이 끝나면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육 현장과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우리 학교 현장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지역사회 또한 학교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학교에 와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럴싸한 행사로 치장하거나 기업의 홍보로서 학교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자신의 능력을 교육 기부하는 모습이었다. 사회 전체가 학생들은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학생들을 그저 아이로만 바라보고 보육 또는 양육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완연하게 비교되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우리의 교육목표, 교수·학습 방법,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교사인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함께 간 단원들과 토론하며 그 길을 찾아본다. '밤하늘의 만월처럼 우리 교육도 충만하길' 바라며 그 길속에 교사로서의 나의 꿈도 함께 보름달처럼 가득차길 바란다.